Session 03 전심을 다한 사랑의 정의 : 4가지 영역 (Defining Wholehearted Love : Four Spheres)

I. 도입

A.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우리의 마음(감성), 성품, 생각(지성)과 힘(재원)의 4가지 영역에서 그분을 사랑하도록 창조하셨다. 이는 그분이 우리를 이와 같이 사랑하시기 때문이다. 이렇게 네 가지 부분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우리가 갚을 빚인 동시에 우리에게 선물이다. 우리가 그분을 사랑해야할 것에 대한 부르심은 우리에게 큰 축복이 되는 부분이다.

30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막 12:30)

30 그러므로 너는 네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생각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첫째 계명이니라 (한글 KJV, 막 12:30)

B. 이 과에서는 우리의 삶의 네 영역에서 하나님께 사랑을 표현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정의할 것이다.

C. 이 사랑은 어떤 것을 말하는 것인가? 이것은 예배 가운데 감성적이 되거나 넘치는 표현으로 드리는 것 그 이상을 말하고 있다. 진실한 사랑은 계속해서 지속되는 우리의 마음의 반응을 요구한다. 우리는 예수님을 향한 사랑에 대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의 삶을 통해 실제적으로 드러나는 것이 아닌, 과격한 헌신에 대한 수사학적인 설명만으로 만족해서는 안 된다.

II.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기

A. 우리 문화에서는 사랑과 자유케 되는 것에 대한 많은 정의들이 있다. 마지막 시대의 핵심적인 이슈들 중의 하나는, 사랑이 무엇이냐에 대한 것이 될 것이다. 우리는 사랑을 하나님께서 정의하시는 대로 정의해야하며, 예수님과 함께 하거나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과는 전혀 관계없는 사랑을 구하는 인본주의적 문화를 기반으로 정의해서는 안 된다. 우리는 오늘날 교회 가운데 떠오르고 있는 사랑에 대한 모든 거짓된 패러다임을 거절해야 한다.

B. 구원에 대한 관점만큼 사랑에 대한 잘못된 관점을 명확하게 드러내는 것은 없다. 모든 사람은 그들이 얼마나 많은 사랑을 했는지의 여부와 관계없이 예수님이 없다면 지옥으로 가게 될 것이다.

C.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자신의 기준을 버리면서 모든 이들의 의견을 관용으로 다 받아들이는 것으로 사랑을 정의하고 계시지 않는다. 사랑은 단지 하나님 안에서 행복해지는 것에 대한 로맨틱한 개념이 아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남자 친구가 아니시며, 인본주의적인 히피의 모습을 하고 계시지도 않다. 사랑은 긴장을 풀고 편안하게 있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D. 하나님 뜻 가운데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일은 우리의 사랑이 성장해나가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삶을 평가하는 기준은 인간과 다르신데, 이는 그분은 모든 돈과, 지혜와, 명성과 영향력, 시간을 소유하고 계시기 때문이다. 우리는 사랑하는 법을 배운 적이 있는가?

E. 모든 하나님의 명령은 우리가 이 명령에 대해 순종할 수 있도록 초자연적으로 가능하게 하실 그분의 약속이 함께 따라온다. 우리는 예수님에 대한 풍성한 헌신을 활발하게 기경해나가야 한다. 이에는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 사랑은 자동적으로 자라나지 않는다. 우리가 의도적으로 마음을 드려 기경하지 않으면 사랑은 줄어들게 된다. 우리는 기도합니다, "하나님, 당신께서 저를 강건케 하셔서 제가 당신께 더욱 많은 것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구원이라는 최소한의 분량만으로 만족할 수 없다. 우리는 마리아와 같이 좋은 편을 선택해야 한다.

42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눅 10:42)

III. 사랑이란 무엇인가? 4가지 전제

A. 전제 #1 : 사랑은 순종에 대한 추구를 필요로 한다.

15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 21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 23 ...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 (요 14:15-23)

1.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순종의 영 가운데 깊이 뿌리박혀 있는 것으로 정의하셨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면서 그분의 말씀을 순종하기를 구하지 않는 일은 있을 수 없다. 사랑은 우리의 태도(정결함과 겸손)와 행동(섬김)의 양쪽 부분에 있어서 전심을 다한 순종을 해나갈 것을 요구한다.

2. 예수님께서는 사랑을 산상 수훈의 라이프스타일을 사는 것으로 정의하셨다(마 5-7장).

3. 정욕에 가득 찬 우리 안의 갈망들을 거절하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표현할 수 있도록 그분께서 우리를 위해 선택해두신 무대와도 같은 부분이다. 우리들은 각자의 성품과 환경에 따라 각자 다른 삶의 어려움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우리들 각자는 하나님께 사랑의 선물로써 드릴 수 있는 서로 다른 **과제**를 안고 있다. 죄에 대해 "NO"를 말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을 표현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 것이다.

4. 어떤 이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삶에서 타협한 부분들을 잊어주시기를 기대함으로 하나님께 더 많은 시간과 재정을 드린다.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사랑이며, 이는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구할 때에 드려지게 된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서 사랑을 구하시되 우리 삶 전부를 원하시며, 이것을 통해서 우리를 그분의 사랑 안에서 보호하시고, 우리를 영광스럽게 하시고, 우리를 위대함의 자리로 이끄신다.

5. 예수님의 모든 명령은 사랑과 연관되어 있다. 예를 들어 그분은 우리에게 그분의 마음 가까이에 머물 것을 명령하시며, 그분의 얼굴을 찾으라 하시며, 정욕 대신 사랑을 선택할 것을 말씀하시며, 영원

한 상급을 받을 것을 말씀하시며, 다른 이들을 향해 사랑의 도구가 될 것을 말씀하신다(그들을 축복하고 섬김으로).

B. 전제 #2 : 사랑은 흠모함으로 신뢰하는 것이다(감사).

9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에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당신의 리더십과 사랑을 증명하셨음)* ***하나님께 드리시고 (계 5:9)***

1. 예수님의 위대하심과 친절하심을 흠모하며 감사하는 것은 사랑에 있어 필수적인 부분이다. 이는 바울의 거룩과 사랑의 신학에 있어서 기초가 되는 부분이다. 놀라움과 감사함으로 가득 찬 사랑으로, 우리는 예수님을 경애하며, 그분의 지혜와 겸손과 권능을 신뢰한다. 그분은 우리의 삶과 온 땅을 다스리시기에 가장 합당하시며 적합하신 인자이시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의 부요한 친절하심(따뜻한 마음)을 가볍게 여기곤 한다. 우리의 죄의 오랜 역사는, 사실 하나님의 진노를 받기에 합당하다.

   4 혹 네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롬 2:4)

2. 우리가 예수님의 위대하심의 진리로 인해 감동되며, 그분이 우리를 어떻게 이끌어 오셨는지를 보게 됨으로 우리 안에서 감사가 일어날 때, 우리 안에 사랑이 자라나게 된다. 시편 기자는 예수님의 표현할 수 없는 사랑스러움에 대한 넘치는 흠모의 마음을 갖고 있었다.

   1 내 마음이 좋은 말로 왕을 위하여 지은 것을 말하리니 내 혀는 글솜씨가 뛰어난 서기관의 붓끝과 같도다 2 왕은 사람들보다 아름다워 은혜를 입술에 머금으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왕에게 영원히 복을 주시도다 (시 45:1-2)

   1 내 마음에서 좋은 말이 넘쳐 왕에 대하여 지은 것을 말하리니 내 혀는 필객의 붓과 같도다 2 왕은 인생보다 아름다워 은혜를 입술에 머금으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왕에게 영영히 복을 주시도다 (개역한글)

C. 전제 #3 : 사랑은 진리에 대한 충성을 요구한다(예수님의 완전하신 지혜에 대한 확신).

1. 진실한 사랑은 사람에 대한 두려움에 자신을 내어주기 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충성됨을 보인다. 마지막 때에 어떤 성도들이 예수님에 대한 거짓말을 부추기는 사단의 교훈에 귀를 기울이게 됨으로 진리에 대한 전쟁이 있게 될 것이다(딤전 4:1-2). 이 충돌의 중심에는 예수님이 누구이신지에 대한 정의(definition)와 우리가 그분을 어떻게 사랑하느냐에 대한 정의가 있게 될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

2.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예수님에서 볼 수 있듯이 그분의 진리에 대해 충성되게 서 있는 것이다. 우리가 드리는 사랑은 예수님에 대해 인본주의적 감성에 젖은 사랑이 아닌, 성경의 예수님과 합한 사랑이어야 한다. 성령께서는 우리를 그분에 대한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심으로, 예수님을 영광스

럽게 하시며 높이실 것이다(요 16:13-14).

3. 인본주의자들을 실족시키는 예수님에 대한 세 가지 진리는 다음과 같다. 첫째는 그분의 신성으로, 예수님께는 열방들이 지켜야 할 절대적인 기준을 세우실 권리가 있다는 진리이다. 예수님께서는 의와 사랑에 대한 인본주의적 관점을 받아들이시지 않는다. 둘째는 예수님만이 구원으로 가는 유일한 길이라는 진리이다. 셋째는 예수님께서 모든 시대를 통해 죄를 심판하실 지혜와 사랑을 소유하셨다는 진리이다.

D. 전제 #4 : 사랑은 전부를 드리기를 원하는 갈망이다(상사병과 하나님을 향한 포기)

8 ... 너희가 내 사랑하는 자를 만나거든 내가 사랑하므로 병이 났다고 하려무나 (아 5:8)

1. 사랑은 수동적인 것이 아닌, 불타는 갈망의 마음이다. 하나님을 향해 상사병에 걸린다는 것은 우리가 다른 어떤 것들보다 예수님을 사랑하기를 원하게 됨을 말한다. 사랑으로 아파하는 것은 예수님을 더욱 갈망하는 마음으로 병들며, 아픔을 소유하게 됨을 말한다. 또한 그분을 향한 사랑을 방해하는 모든 타협들을 제거하는 것을 말한다.

2.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분은 모든 것을 소멸하시는 질투의 불로 불타오르는 분이다. 그분은 우리의 삶을 취하시기를 원하며, 우리를 내면으로부터 전체를 소유하기를 원하시며, 우리의 감정과 생각 그리고 말을 다스리기를 원하신다. 이를 통해 그분은 우리를 이끄시며 우리가 받을 영원한 위대함과 기쁨을 세워나가기를 원하신다.

14 ... 여호와는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임이니라 (출 34:14)

3. 모든 것을 소유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원하시는데, 이는 그분이 사랑이시기 때문이다. 사랑은 관용을 말하는 것이 아닌, 갈망을 말하는 것이다. 모든 것을 가지신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무엇인가를 원하고 계신다. 왜인가? 이는 그분이 무엇인가 결핍되었기 때문이 아닌, 그분 자신이 갈망의 샘이시기 때문이다. 갈망은 원함과 소망함이 있음을 말하며, 이는 결핍되어 있음을 의미하지 않는다.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결핍도 느끼지 않으심에도, 자신의 사랑하는 자를 원하신다.

4. 예수님께서는 그분 자신을 우리에게 보이실 것인데, 이는 구원자, 치유자, 공급자이심을 넘어서서 질투하는 신랑의 모습을 보이실 것이다. 이는 그분이 우리의 온 마음을 다 가지실 때까지 우리를 추구하는 것을 멈추지 않으실 것임을 나타낸다. 우리는 다음과 같이 부르짖을 때, "주님, 당신을 더 원합니다," 그분은 대답하십니다, "내가 너를 더욱 원하는구나."

5.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포기 가운데로 부르십니다. "너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거라. 모든 것을 뒤에 버려두고, 나를 위해 너희 집과 땅에게 작별을 고하거라." 이는 사랑으로 인해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신 신랑의 음성이다(엡 5:29-32). 예수님께서는 친구를 위해 자신의 목숨을 내려놓는 것을 사랑이라고 정의하셨다(요 15:13). 예수님께서는 그분의 온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해 우리를 사랑하시며, 그분이 원하시는 것은 이와 같은 사랑에 함께 멍에를 진 백성들이다. 신부의 패러다임은 포기이다(엡 5:29; 시 45:10).

IV. 첫 번째 영역 : 우리의 마음(heart)을 다한 사랑 : 감정(affections)

A. **마음을 다한 사랑** : 이는 우리의 모든 감성(감정)을 다한 사랑을 말한다. 마음은 우리의 결정들에 영향을 미치는 감정과 갈망, 그리고 소망 등을 말한다. 마음은 우리의 내적 자아를 움직이는 보이지 않는 흐름이다. 우리의 마음은 우리의 바라보는 모든 것에 색을 입히는 강력한 감정들을 가지고 있다. 우리의 마음은 우리의 핵심적 실체를 정의해주며, 우리의 하는 모든 일들을 이끌어나간다.

23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잠 4:23)

B. 우리는 우리가 선택한 대상에 사랑이나 감정을 두기로 결정할 수 있다[1]. 그리고 우리의 감정은 우리가 추구하기로 결정한 것을 종국적으로 따라간다. 이를 통해서 우리는 자신의 감정이 시간을 두고 자라나게 될 길을 정하게 된다. 우리가 자신의 목표를 바꿀 때,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감정들)을 바꾸신다.

14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시 91:14)

C.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로 결정하는 것은 우리의 사랑을 방해하는 것들, 쓴 마음이나 정욕, 오락으로 인한 과도한 자극, 영향력이나 물질을 얻기 위한 추구와 같은 것을 제거하는 것을 말한다.

D. 다윗은 하나님을 사랑하기로 자신의 마음을 정했다. 우리의 결정은 우리의 감정의 형성에 궁극적으로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 우리의 결정 자체만으로는 우리의 감정을 바꾸기에는 충분하지 않지만, 우리의 감정이 변화되어가는 과정에 있어서 필수적인 부분이다.

1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시 18:1)

E. 우리는 주를 기뻐하며, 우리의 사랑을 그분께 두기로 결정한다.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을 향해 두기로 결정하는 것에 있는 힘을 과소평가해서는 안 된다. 이를 통해 우리는 우리 자신을 성령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두게 된다. 우리는 희생이 따를지라도 순종 가운데 걸어가기로 결정함으로 그분을 사랑하기를 결정해야 한다.

4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네 마음의 소원을 네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시 37:4)

F. 성령님께서는 우리의 결정권을 인정하시며, 우리에게 사랑을 부어주시기까지 이 결정들을 기다리신다.

5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롬 5:5)

G.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어디에 둘지를 결정할 수 있는 힘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 받은 인간의 영이

1) 역자주 : 우리가 선택한 대상을 사랑하기로 "결정"하는 것이지, 감정을 일으킨다는 의미는 아니다

가진 큰 존귀함이다. 천사들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 받은 사람들과 같은 감성을 지니고 있지 않다.

H. 우리는 지속적으로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초자연적인 도우심을 구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기로 결정해야 한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향해 가지고 계신 사랑을 당신의 마음에 부어주시기를 구하십시오. 그리고 당신의 마음을 하나님의 사랑 안으로 인도해주시기를 구하십시오.

5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살후 3:5)

I. 어느 누구도 당신을 대신해서 "당신의 모든 사랑"을 하나님께 드릴 수 없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예수님께서 받으실 오직 하나뿐인 유업을 당신에게 맡기셨습니다. 이는 오직 당신만이 드릴 수 있는 사랑입니다. 우리가 이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는, 예수님께 대한 사랑이 드물고 귀한 타락한 이 세대에서 드릴 수 있는 단 한 번뿐입니다.

J. 사랑에 기반한 순종은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함으로 인해 그분께 응답하며 드리는 순종이다. 이는 가장 강력하고, 가장 깊고, 가장 지속적인 순종이다. 상사병에 걸린 사람은 사랑을 위해서 그 어떤 것이라도 견디어 내기 때문이다. 사랑에 빠진 사람은 누구도 막을 수 없다. 자유는 그리스도의 멍에 안에서 발견할 수 있다.

V. 두 번째 영역 : 우리의 성품(soul)을 다한 사랑 : 성품(personality)

A. **성품(soul)을 다한 사랑** : 혼(soul)은 우리의 성품을 말하며, 우리의 능력과 갈망의 독특함을 보여주며, 우리의 말하는 방법, 살아가는 방법, 그리고 우리의 선호도 등을 보여준다.

B. 우리의 성품은 우리의 말을 통해 가장 역동적으로 표현된다. 우리의 말은 우리가 사랑 안에서 자라갈 수 있는 능력을 늘어나게도 하고, 사그라지게도 한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 안에 사랑이 자라날 수 있는 방향으로 우리 자신을 표현하기로 결정해야 한다. 성령께서 근심하실 때, 우리는 그분으로부터 충만한 분량을 받을 수 없게 된다(엡 4:29-32; 5:1-6).

29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30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엡 4:29-30)

C. 우리의 내적 자아에 영향을 끼치는 잘못된 언어로 인해 풀어지는 부정적인 불로 우리의 사랑이 감소될 수도 있다(약 3:6-10; 4:10-11; 5:8-9; 고전 3:2-3,16-18). 우리는 불평하는 입술이나 서로를 비방하는 것을 그만둬야 하며,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분의 사랑을 받는데 방해가 됨을 알아야 한다.

D. 우리가 실패할 때 우리는 고백한다,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는 자이며,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이다. 그러므로 나는 성공한 자다."** 우리 자신은 실패나 성취로 인해 정의되지 않는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경멸하지도 않으시며, 우리는 연약하기 짝이 없는 소망 없는 위선자가 아니다. 우리는 우리의 육적인 정체성(다른 사람에게 우리가 어떻게 보이는가)이 아닌, 영적인 정체성(하나님께 우리가 어떤 사람

인지)으로 살아야 한다.

VI. 세 번째 영역 : 우리의 생각(mind)을 다한 사랑 : 사고(thoughts)

A. **우리의 생각을 다한 사랑** :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풍부하고도 수고를 아끼지 않는 묵상으로 우리의 생각을 채워야 하며, 예수님을 향한 사랑을 소멸하거나 성령을 훼방하는 것들이 우리 생각 가운데 들어오는 것을 막아야 한다.

B. 하나님을 우리의 마음을 다해 사랑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우며 우리가 하나님의 성경적인 패러다임에 동의하는 것을 말한다. 이는 또한 신랑이자 왕, 그리고 심판자이신 예수님에 대한 모든 거짓말을 거절하는 것도 포함한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 묵상함으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계시를 얻게 된다.

C. 인간의 영의 언어는 이미지이다. 우리의 생각은 우리의 지식과 이해를 말하며, 상상과 공상을 하는 장소이기도 하다. 이곳은 우리 내면의 영화관과도 같은 곳이며, 우리에게 이미지와 그림들(좋은 것, 혹은 나쁜 것)을 공급해준다. 우리의 생각은 우리의 기억을 저장하는 카메라와 같다. 우리가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할 때, 우리는 우리 내면의 캔버스에 그림을 새로 그리게 된다. 우리는 잘못된 생각들을 지우고 이를 거룩한 생각으로 교체할 수 있다.

D. 우리는 이 생각이라는 것을 꺼버릴 수 없기 때문에, 우리 삶에서의 많은 일들이 우리의 생각에서 일어난다. 우리의 생각은 우리가 누구이며, 우리가 누구를 사랑하는지를 정의한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가장 먼저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찾도록 해준다. 우리의 생각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강력한 가능성이다. 묵상을 통해, 우리는 우리의 마음의 고삐를 잡고, 우리가 우리 내면에서 계속해서 바라보는 영과의 대본을 써나갈 수 있다. 우리는 우리 생각 안의 이미지를 닫아버릴 수 없지만, 그것의 방향성을 조절하고 바꿀 수 있다. 우리의 가장 첫 생각이 예수님이 될 수 있으며, 우리의 공상의 내용이 예수님이 될 수도 있다. 우리의 생각이 새롭게 되며 우리가 예수님의 아름다우심과 사랑 안에 거하게 됨으로,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정욕과 교만, 공상과 두려움으로부터의 달콤한 탈출구가 되실 수 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안식처와 탈출구가 되어주시기를 원하신다. 당신이 심호흡을 하거나 홀로 운전을 할 때, 당신의 생각은 어디를 향해 가고 있습니까?

VII. 네 번째 영역 : 우리의 힘(strength)을 다한 사랑 : 재원(resources)

A. **힘을 다한 사랑** : 이는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재원들(시간, 재정, 재능, 명성, 영향력)을 다해 사랑함을 말한다. 우리는 우리의 재원들을 우리의 사랑을 자라나게 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용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

B. 우리는 특별히 마태복음 6장 1-18절에 강조된 우리의 힘과 관련된 5가지 행동들을 절제(금식)할 수 있다. 이 다섯 영역은 우리가 우리의 재원들(시간, 재정, 에너지, 명성 등)을 성령님의 손에 올려드리는 자원하는 연약함을 나타내고 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를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위치에 두는 다섯 가지 은혜를 풀어놓는 활동을 설명하신다. 이는 **섬기고**, **베풀며**(구제, 섬김/재정을 부어줌, 마 6:1-4;19-21), **기도하고**(마 6:5-13), **대적을 축복하며**(용서, 마 6:14-15; 5:44) **금식**(마 6:16-18)하는

일이다.

9 ...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금식의 라이프스타일을 통해 자원하여 연약함을 선택함)* ... *(고후 12:9)***

C. 우리는 보통 우리의 힘을 우리 개인적인 안락이나 부와 명성을 위해 사용한다. 우리는 금식의 삶을 통해 우리의 재원들을 우리가 신뢰하는 하나님께 드리며, 그분이 그것들을 사용해서 우리를 부요하게 하며 겸손함으로 변화시킬 수 있도록 맡겨드리게 된다.

D. 우리의 헌신의 삶은 값없이 주신 은혜를 누리고 기뻐하는 통로이지, 그것을 얻는 수단이 아니다. 이 다섯 영역을 통해, 우리는 우리의 냉랭해진 마음을 하나님의 넉넉히 이기게 하시는 은혜의 화롯불 앞에 두게 되며, 이로 인해 성령님의 강건케 하심을 경험하게 된다.

VIII. 우리의 모든 것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함

A. 우리가 예수님과 멍에를 함께 질 때 중요한 것은 사랑의 크기가 아닌, 우리의 "모든" 사랑이 드려지는 것이다. 비록 우리의 모든 것이 작을지라도, 중요한 것은 그것이 우리의 전부라는 사실이다. 그분은 자신이 우리를 사랑하는 방법으로 사랑을 받으시기를 원하신다.

B. 100% 순종을 향해 지속적으로 나아가는 것은 100% 순종을 우리의 삶에서 완전히 이루는 것과는 다른 얘기이다. 우리가 죄를 지을 때, 우리는 회개하며 100% 순종을 향한 우리의 결심을 새롭게 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즐거워하신다는 확신으로 온전한 순종을 드리기로 결정한다. 주께서는 우리가 사랑 안에서 자라나가는 과정을 가치 있게 여기신다. 그분을 사랑하기 위해 순종을 향해 우리 마음을 드리는 것은 그분의 마음을 움직인다. **우리가 멈추지만 않는다면, 우리는 승리한 자이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정체성을 우리 자신의 실패에서 찾지 않으며,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실과 의의 선물,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한 우리 영혼의 부르짖음에서 찾아야 한다(고후 5:12).

C. 우리 삶의 능력은 100%의 순종을 추구하는 것에서 찾을 수 있다. 우리가 온전한 순종을 위해 균형 있는 추구를 계속해 나갈 때, 우리의 마음 안에는 능력 있는 변화가 일어나게 된다. 98%의 순종에는 제한적인 축복이 부어진다. 나머지 2%로 인해 우리는 살아 생동력 넘치는 마음으로 살게 된다. 수십 년간 온전한 순종에 이르기 위해 노력하는 삶은 하나님 앞에서 사는 과격한 삶의 정의라고 할 수 있다.

D. 우리가 삶에서 죄를 철저하게 직면하는 것을 간과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덜 받게 되지는 않는다. 그러나 우리는 마지막 날에 예수님께 드릴 우리의 충만한 사랑을 부분적으로 잃게 될 것이다.

E. 사랑에 빠진 사람은 누구도 말릴 수 없다. 진정한 자유는 우리가 하나님을 넘치고 풍성하게 사랑함으로 그리스도의 멍에를 지는 데에서 발견할 수 있다. 우리는 우리에게 잘못 대한 사람들로 인한 쓴 마음에 갇혀있거나, 부나 명예를 추구하는 것에 사로잡혀 있어서는 안 된다.